

##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 A Measure of Marital Intimacy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이 경 희

Dept. of Consumer &amp;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yung Hee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척도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
| II.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고유성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개념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literatures on marital intimacy. The second purpose was to develop a theory-derived scale to measure marital intimacy. From an original lists of 32 items developed from literatures, the survey was practic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4 married adults who had been married more than 5 years.

Through this process, a final lists of 19 item scale that were covering 4 different aspects of affectional, sexual, committed, cognitive marital intimacy yielded. Reliability estimate assessed by Cronbach's coefficient is .903. Content Validity was evidenced by jury logical opinions. Construct Validity was tested in relation to Spanier's DAS scale.

## I. 서론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들 중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가족관계 연구에 비해 많은 관심을 끌어 온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구경향의 변모가 있었다. 부부간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다차원성에 관한 비판

논쟁은 80년대 말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논쟁에서 결혼의 질을 설명할 적합한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90년대까지 이러한 개념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Glenn, 1990).

이런 다양한 경향들 중 실제 부부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학자들(Greenberg &

Johnson, 1986; Magolin & Weinstein, 1983)은 부부간 심리적 상호기제를 밝히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부간에 특히 필요로 하는 정서는 부부간 친밀감 획득에 있음(Hatfield, 1984; Patton & Waring, 1984; Waring et al., 1980)을 밝혀냈다. 부부간 친밀감이 부부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친밀감 부재시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 친밀감의 결여가 이혼사유로 가장 빈번히 거론되었으며(Waring, 1984; Moss & Schwebel, 1993에서 재인용),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사회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를 유발시킨다고 한다(Patton & Waring, 1984).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임상적(Schaefer & Olson, 1981)으로나 가족치료의 분야(Doherty et al., 1985)에서 부부간 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와 최근에는 학술적(Giddens, 1992; Morton & Douglas, 1981; Moss & Schwebel, 1993)으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상담 및 치료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까닭에(이명홍, 1993) 부부간 친밀감의 중요성은 확고히 피력되지 못하고, 부부간 친밀감에 관한 학술지 발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현장을 통해서(김종옥, 1994) 상담자들이 부부간 친밀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관계의 질(김은주, 1994; 신효식, 1993; 전길양과 김태현, 1993; 조병은과 신화용, 1992; 이경희, 1988)이나 형제자매간 관계의 질(남영주, 1994; 전해정, 1992)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친밀감의 개념이 사용된 논문이 몇 편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친밀감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한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척도들이 외국의 척도들을 번안·수정하여 척도의 구체적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내 연구의 취약한 일면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실증적 검증을 통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필요성에서 본 연구가 출발되었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부간 친밀

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관계의 질을 설명하고 있는 타 개념과 부부간 친밀감 개념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외국에서 이루어진 부부간 친밀감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의 및 구체적 요소들을 밝혀 부부간 친밀감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셋째,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요소들이 실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과 어느정도 부합되는지 경험적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앞 부분에서 행해진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밝혀내는 작업은 실제적인 임상현상에서 부부간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불어 척도개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뒷부분에서는 앞 부분에서 행해진 분석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개발하여 앞으로 부부간 친밀감 연구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고유성

본 장에서는 부부간 친밀감 개념이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밝히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존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했던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인관계 친밀감의 개념은 부모자녀관계나 형제자매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기에 부부간 친밀감 개념과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해서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부부간 친밀감 개념과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타 개념과의 구분

사회적 맥락속에서 결혼은 과거의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결혼으로 변천해왔고(권희안, 1992), 그에

따라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 역할이나 권력보다는 만족감, 애정, 적응, 조화와 같은 개념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미 결혼만족, 적응, 애정 등 여러가지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친밀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개념들과 구분될 수 있는가? 더불어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여타의 개념과 구분하여 친밀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친밀감의 개념과 부부간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타 개념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결혼만족을 들 수 있다(이미숙, 1990; Adams, 1980). 결혼만족이란 각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느끼는 만족한 감정의 정도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라고 정의(이미숙, 1990)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혼만족을 측정하는 것은 단일 문항(최신덕, 1986)이거나 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하는 척도(박찬미과 서병숙, 1987)이기 때문에 두 사람간의 정서적인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친밀감 개념과는 달리 결혼생활의 총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측면에 관해 본인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간의 깊이있는 관계성을 포착하기에는 친밀감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며 결혼만족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 개념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개념은 최근 부부관계 연구에서 과거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는 반면 결혼 적응의 개념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부부간 적응의 개념과 부부간 친밀감의 개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부부간 결혼적응은

각 배우자가 결혼관계에서 순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Adams, 1980)으로 가족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응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논문들(고선주, 1993; 이미숙, 1984)이 특히 신혼초나 역할 및 지위의 변화가 있는 역할 전이의 시기에 밀집해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이라는 개념은 생활주기의 전이기에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에 가족원이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에 보다 적합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부간 친밀감 개념은 실증적 타당도 검증을 통해 부부적응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이 외국의 한 연구결과(Waring et al., 1981)에서 밝혀졌다.

또한 친밀감이라는 용어는 종종 애착, 부양과 혼동된 개념으로 인식되는데 애착이나 부양보다는 친밀감이라는 개념속에 성적인 요소, 공동의 교감, 상호적 자기노출이라는 의미가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Wynne, 1984)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친밀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성적 욕구, 헌신, 애정의 개념이 있다. 먼저 친밀감과 성적 욕구와의 개념상 차이를 보면, 성적인 욕구는 확실히 친밀감의 욕구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지만 성적 욕구가 친밀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Wynne, 1984). 친밀감과 애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애정보다는 친밀감이 좀 더 깊이있는 대인간 관계의 공유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Doherty & Colangelo, 1984). 한편 헌신의 개념은 두 사람이 관계의 정체성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바(Stanley & Markman, 1992), 관계의 정체성에 주안점이 있다.

- 1) 친밀감 개념이 다른 개념에 비해 두 사람간의 깊이있는 관계성을 포착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라는 생각의 근거는 친밀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기인한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내부” 혹은 “내부 깊숙이”라는 뜻을 가진 *intimus*라는 단어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 또한 불어의 *intime*는 “비밀스럽고, 깊고, 열성적인, 갈망하는”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어의 *intimo*는 “우정의, 내부적으로 타인과 밀접한”의 의미를 갖는다. 스페인어의 *intimo*는 “사적이고, 타인과 밀접하고 내부 깊숙한”을 의미한다(고선주의, 1994). 따라서 친밀감의 개념은 두 사람관계에서 깊이있고 밀접한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적합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부부간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의 개념은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해, 즉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또한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 관해 모두 묻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 두 사람만의 관계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부간 결혼만족도나 결혼 적응에 관한 척도들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결혼생활의 행위적이고 언어적인 표현들로 질문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외국의 척도들이 약간의 언어적 표현방식만을 달리하여 우리나라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한가지 특성은 비언어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표현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의 개념과는 달리 부부간 애정이나 헌신, 성적욕구와 같은 개념은 부부간 관계의 협소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바 부부간 관계의 상호성과 공유성을 강조하는 친밀감 개념이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써 적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부부간 친밀감과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의 차이

그동안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 중 친밀감의 개념을 사용한 논문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것들(김은주, 1994; 신호식, 1993; 전길양과 김태현, 1993; 조병은과 신화용, 1992; 이경희, 1988)과 형제자매관계의 질을 설명한 것들(남영주, 1994; 신혜정, 1992)이다. 부부간 친밀감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관계의 질로 사용된 친밀감의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차이점도 보인다.

그 유사성은 부부간 친밀감 개념이나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 개념 모두 성인들간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가족인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아나 어린아동의 경우에는 애착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 비해 성인 부모자녀나 형제자매간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친밀감이란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친밀감이란 개념은 성인 두 사람간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관계의 질을 설명하든지 간에 친밀감 개념의 정의나 질문지 문항구성을 보면 두 사람간의 상호성을 강조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친밀감 개념이 일생중 성인기에 있어 중요한 개념임을 피력한 Erikson(1950)이나 Sullivan(1953)의 설명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부부간 친밀감 개념이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 개념보다 다면적이고 광의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을 연구한 대부분 논문들이 친밀감의 개념을 일면적인 이해, 존중, 사랑, 협조 등의 뜻으로 파악하고 있거나(이경희, 1988; 전길양과 김태현, 1993; 조병은과 신화용, 1992), 아니면 보다 넓은 개념의 결속(김은주, 1994; 신호식, 1993; 신혜정, 1992)이나, 관계적 특성(남영주, 1994)의 하부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친밀감의 개념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반해 부모자녀간·형제자매간 친밀감의 개념에는 애정적 요소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eldman(1979)이 밝힌 바와 같이, 부부간 친밀감이 다른 가족원들과의 친밀감과 다른 특징은 성직 친밀감에 있다.

## Ⅲ. 개념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부부간 친밀감개념의 내용적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1.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의

역사적으로 친밀감의 개념이 문헌에 자주 등장한 것은 아니나 생애발달이론적 관점에 따라 몇몇 학자들(Erikson, 1950; Sullivan, 1953;)의 주목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라 친밀

감 개념을 해석하는 수준이 일반적 수준, 다면적 수준, 일면적 수준으로 다를 수 있다.

먼저 친밀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학자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친밀감의 중요성(Erikson, 1950; Hinde, 1978; Sullivan, 1953)을 전달해 준다고 할지라도 개념정의의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설명적이고 조작화된 개념을 필요로 한다.

반면, 친밀감의 개념을 일면적인 것으로 해석한 연구자들은 거의 친밀감의 개념을 행위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Moss & Schwebel, 1993). 따라서 친밀감에 대한 개념정의를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Reiss et al., 1985), 행동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친밀감의 개념을 행동적인 특성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로는 친밀감을 신체적인 접촉과 동일 개념으로(Argyle & Dean, 1965; Patterson, 1976;), 동조와 같은 개념으로(Stone, 1973)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부간 친밀감 개념을 다면적으로 이해한 경험적 연구들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부부간 친밀감의 개념을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긍정적이고 밀접한 느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면서도 몇몇 연구들(Chulune et al., 1984; Spooner, 1982; Sternberg, 1986; Strong, 1975; Traupmann et al., 1982)은 그 구체적인 요소에 관해서는 경험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연구들(Feldman, 1979; Giddens, 1992; Hetherington & Soeken, 1990; Morton & Douglas, 1981; Moss & Schwebel, 1993; Patton & Waring, 1984; Schaefer & Olson, 1981; Solomon et al., 1992; Sternberg, 1986; Stevens & L'abate, 1989; Waring, 1984; Waring et al., 1980; Waring et al., 1981; White et al., 1986)은 친밀감 개념의 다면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친밀감 개념의 요소들을 밝히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

력들은 친밀감 개념이 두 사람간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특성상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흔적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Schaefer 와 Olson(1981)은 친밀감 요소에 관해 “친밀한 사안들, 친밀한 경험의 노출로 이루어진 성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오락적, 영감적, 미적의 7가지 측면에서의 가까운 느낌”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친밀감의 개념을 단지 두 사람간에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보다 갈등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깊이있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Stevens와 L'abate(1989)는 친밀감의 정의를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공유”라 하고 있다.

세번째는 친밀감이란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서로 가까워지려는 과정이다”(Hatfield, 1984)라고 정의하는 바와 같이 친밀감의 개념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가까워지려는 과정으로 이해한 연구들(Hatfield, 1984; Reis & Shaver, 1988)이다.

위의 친밀감 개념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부부간 친밀감 개념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간의 가깝고도 밀접한 느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친밀감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친밀감 개념의 구성요소를 밝히려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구성요소를 밝힌 다음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친밀감 개념의 정의에 정확성을 기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친밀감의 정의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확한 특징 및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친밀감 개념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친밀감 개념의 구체적 요소들을 밝히고자 한다.

## 2.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요소

이제까지 발표된 부부간 친밀감의 다면적인 정의를 행한 17개 논문들을 분석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

념에 어떠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1). 일례로 Giddens(1992)는 헌신, 갈등해소, 성적욕구, 양립성, 자율성, 정체감, 상호공유성을 친밀감 개념의 요소로 포함시켰다. 각 연구자들이 부부간 친밀감의 요소로 언급한 요소들을 왼쪽 열(column)에 모두 나열한 뒤 연구자가 이 요소들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표 1>로 작성하여 보았

다. 왼쪽 열(column)에 나열된 요소들 중 적어도 5편 이상의 논문에 포함되어진 요소를 추출하여 5가지 친밀감의 하위요소를 규명해 내었다. 이들 5가지 하위요소들 중 본 절에서는 4가지 하위요소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2)</sup>.

4가지 하위요소들 중 성적 요소가 가장 많은 연구자에 의해 언급되어진 요소로, 부부간 친밀감의 특

<표 1> 친밀감 개념의 요소 분류 목록표

연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요 소																	
헌신			●				●	●			●						●
친숙함						○											
관계지향성								○							○		
갈등해소	○		○										○	○			
애정	●				●		●			●	●	●				●	
응집성	○																
성적 욕구	●	●	●		●		●		●	●	●				●		●
정서적 요소		○		○					○		○						
사회적 요소									○	○							
지적·인지적 요소		●		●		●	●		●	●	●						
오락적 요소									○	○							
영감적 요소									○								
미적 요소									○								
행동적 요소				○									○				
표현성	○																
양립성	○		○														
자율성	○		○														
정체감	○		○														
상호공유성			●		●		●					●	●				
의사소통												○					○

1: Chulune et al. (1984), Patton & Waring (1984), Waring (1984), Waring et al. (1980), 2: Feldman (1979), 3: Giddens (1992), 4: Hatfield (1984), 5: Hetherington & Soeken(1990), 6: Morton & Douglas (1981), 7: Moss & Schwebel (1993), 8: Reis & Shaver(1988), 9: Schaefer & Olson (1981), 10: Solomon et al. (1992), 11: Spooner(1982), 12: Sternberg (1986), 13: Stevens & Labate (1989), 14: Strong (1975), 15: Traupmann et al. (1982), 16: Waring et al. (1981), 17: White et al. (1986).

\*논문의 번호 순서는 알파벳순

○ :연구자가 포함시킨 요소

● : 5회 이상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친밀감요소로 추출된 요소

성을 잘 나타내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애정이 나 헌신 또한 친밀감의 주요한 요소임을 <표 1>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부부간 친밀감의 하위요소로 추출된 각각의 요소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애정 : 애정이란 정서적 밀접함의 느낌이 상대방과 얼마나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상호적인 특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배우자에 대해 좋아하는, 사랑하는 감정과 긍정적인 의견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좋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정도의 애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성적욕구 : 이것은 성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정도로 특히 부부간 친밀감 요소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성적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정도나 성에 관해 만족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헌신 : 이는 두 사람간의 관계에의 몰입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에게 영원히 남고 싶은 욕구, 배우자나 결혼에 대한 충성심을 뜻한다. ④ 지적 혹은 인지적 요소 : 친밀감에 있어 인지적인 요소란 한 개인과 상대방이 생각이나 사고에 있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과 한 개인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밝혀냄으로써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부부간 친밀감개념의 정의 및 요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부부간 친밀감이란 “부부가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느끼는 매우 가깝고도 공유되는 밀접함”으로 이에 는 애정적, 성적, 헌신적, 인지적요소가 포함된다.

#### IV. 척도개발을 위한 실증연구

##### 1. 조사대상

본 조사대상은 결혼한지 만 5년이 지난 부부이다. 부부간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부부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유치원 1개, 국민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에서 표집되었다. 질문지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으로 구분하여 한 학생에게 2부씩 배부하였다. 지역의 선정은 주택지구와 아파트지구를 비슷하게 안배하여 조사대상자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학생이 부모에게 질문지를 전달하면 부모가 직접 기입한 후 다시 학생이 학교로 가져와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 목적과 질문지 기입방법은 질문지의 1면과 2면에 상세히 기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남편용 220부, 부인용 220부를 배부하여 총 440부를 배부하였는데 부인용 175부, 남편용 169부를 합하여 총 350부를 회수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95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중에서 부인용, 남편용 응답 글씨체가 같고 응답점수가 동일하여 배진 것으로 보이는 6부를 제외한 34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남편용과 부인용 질문지 내용은 동일하나, 부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지 표지에 ‘남편용’, ‘부인용’으로 표기를 하여 배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 2. 측정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부부간 친밀감에 대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친밀감 개념의 하위요소들을 추출해 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실제 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에 나와있는 친밀감 척도들을

2) 상호공유성 요소가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한 요소로 추출되었으나 따로 독립된 개념으로는 분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의 4가지 요소인 애정, 성, 헌신, 인지적 요소속에 이미 상호공유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PAIR(Schaefer & Olson, 1980)에 나와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그 내용상 상호공유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344)

항 목	구 분	비율 (%)	항 목	구 분	비율 (%)
성 별	남	49.1*	종 교	기독교	30.8
	여	50.9		천주교	13.7
연 령		평균 40.8 세		불교	23.8
교육수준	국졸이하	1.7		무교	31.1
	중졸	6.7	월평균 수입(만원)	50-100	6.6
	고졸	40.4		100-200	47.1
	전문대졸	6.7		200-300	17.2
	대졸	39.0		300-500	7.9
	대학원 이상	4.9		500이상	1.2
직 업	전문관리직	8.4		결혼년수	
	사무직	34.0	가족형태	핵가족	91.9
	자영업	14.8		직계가족	6.4
	서비스직	12.2		친정동거	1.7
	생산판매직	0.6	가족생활 주기단계 (첫자녀 연령)	I. (학령전)	7.0
	주부	29.7		II. (국민학교)	29.1
		III. (중학교)		27.9	
		IV. (고등학교)		19.8	
		V. (대학교)		5.1	

\* 숫자에 단위가 없는 것은 백분율임.

참고하였다.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인지적, 애정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Schaefer와 Olson(1980)의 PAIR(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s)척도가, 성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Hetherington과 Soeken(1990)의 IRS(Intimate Relationship Scale)척도가, 헌신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Stanley와 Markman(1992)의 CI(Commitment Inventory)척도와 Stevens와 Labate(1989)의 SOH(Sharings of hurts)가 주로 참조되었다.

이러한 문항 선정과정에서 용어의 통일 및 표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문항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sup>3)</sup>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배우자는”이라는 표현은 모두 “남편” 혹은 “부인”으로 표현하였고, 상호공유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

해 “우리는”이라고 바꾸어서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헌신적 요소 8문항, 인지적 요소 9문항, 성적 요소 7문항, 애정적 요소 8문항을 작성하였다.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간 친밀감 척도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응답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거의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이는 다른 외국의 친밀감 척도(Hetherington & Soeken, 1990; Schaefer & Olson, 1980; Stevens & Labate, 1989)의 응답방식과 동일하다.

3)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족학 박사과정 이상 전공자 4인의 평가를 참고하여 3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쳤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척도의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간 친밀감 척도의 하위요소와 전체 친밀감 척도, DA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성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4. 문항선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을 선정한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차 문항 선별작업

제1단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타 문항과 모두 부적인 관계를 갖는 7개의 문항이 먼저 제거되었고 다음으로는 한 문항과 상관관계는 높지만 타 문항과 상관관계가 .3이하인 4문항이 제거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총 문항수는 21개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요소는 인지적 요소의 4개 문항, 애정적 요소의 3개 문항, 헌신적 요소의 3개 문항, 성적인 요소의 1개 문항이다.

#### 2) 이차 문항 선별작업

문항의 간결화와 이론적 검증을 위해 21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교회전을 했다. 통계분석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주성분 분석방법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로 각 요인은 전체분산의 57.5%를 설명한다. 그러나 제 4요인으로 묶인 두 개의 문항은 전혀 성격이 다른 문항이 함께 묶였고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타 요인들과 아주 낮은 관계를 보여 이 요인을 삭제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시도하였

다. 19개의 문항을 가지고 다시 사각 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37.5%, 7.2%, 5.8%, 5.3%를 설명하고 이는 전체분산의 55.8%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요인을 삭제하기 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여러번에 걸친 요인분석 결과 채택된 요인구조는 10문항이 요인 1에, 3문항이 요인 2에, 3문항이 요인 3에, 3문항이 요인 4에 포함되었다.

요인 1은 애정적 요소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에이젠 값이 7.13으로 설명력이 가장 크다. 이 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분석전 문항구성 과정에서는 인지적, 애정적, 헌신적 요소로 나뉘어 있던 것들이나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애정적 요소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인 2는 성적 친밀감 요소로 명명하였다. 3개의 문항 모두 문항 구성 과정에서 성적 친밀감 요소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3개의 질문 모두 부부간 성에 관한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요인 3은 헌신적 친밀감 요소로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3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문항 구성과정에서 헌신적 친밀감 요소로 구성된 8개의 문항 가운데 3문항으로서 내용상으로 보면 부부가 각기 자기 혼자만을 인식하기 보다는 두 사람을 한 단위로 인식하는 내용들이다.

요인 4는 인지적 친밀감이라 명명하였다. 3개의 문항이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2개문항은 문항구성 과정에서 인지적 친밀감이었던 것이고 1개 문항이 애정적 친밀감이었던 것이다.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인지적으로나 애정적으로 모두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인지적 친밀감이라 명명하였다.

#### 3) 문항선별 마무리 작업

부부간 친밀감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32개의 문항으로 조사연구를 거쳐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작성하였다. 이에 애정적, 성적, 헌신적, 인지적 친밀감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이 문헌고찰을 통해 미리 구성한 문항들이 많이 탈락한 것은 처음 문항구성시 되도록이면 많은 문항

〈표 3〉 요인분석표 및 각 문항과 척도의 총점과의 상관계수

하위요소	문항번호	요인 구조 및 요인 부하값				척도의 총점과의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애정적 친밀감	1	.77				.622
	5	.75				.713
	9	.70				.648
	13	.67				.583
	14	.61				.681
	15	.56				.717
	16	.56				.585
	17	.55				.633
	18	.54				.641
19	.52				.782	
성적 친밀감	2		.84			.612
	6		.70			.537
	10		.55			.491
현신적 친밀감	3			.66		.514
	7			.64		.523
	11			.54		.565
인지적 친밀감	4				.77	.519
	8				.66	.648
	12				.53	.462
	고유값	7.13	1.37	1.10	1.00	

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최종적인 19개 문항의 요인분석표와 척도의 총점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 5. 신뢰도와 타당도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였다. 19문항으로 산출한  $\alpha$ 계수는 .903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용타당도와 구성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앞서 보았듯이 척도문항 구성 단계시 부부간 친밀감 개념정의 및 요소를 문헌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문헌적 고찰이 외국의 문헌에 근거한 까닭에 실제 사회조사에 앞서 우리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자 4명의 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척도의 구성체타당도 검증은 다른 학자들(Hetherington & Soeken, 1990; Stevens & L'abate, 1989)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anier와 Thompson(1982)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기준관련 척도로 삼았다. 부부간 친밀감 척도가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DAS와도 적절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보이는 〈표 4〉을 보면 DAS와 친밀감 척도간의 상관관계, 각 척도 하위요소들과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모

(표 4) 친밀감 측정치들과 DAS와의 상관계수표

		친 밀 감				
		애정적	성 적	현신적	인지적	총 점
친밀감	애정적		.535	.575	.593	
	성적			.398	.406	
	현신적				.412	
	인지적					
	총점	.950	.686	.704	.723	
DAS	affection	.410	.454	.197	.399	
	cohesion	.582	.349	.408	.380	
	consensus	.595	.331	.394	.366	
	satisfaction	.639	.421	.385	.376	
	Total	.723	.477	.455	.471	.708

두 제시되어 있다.

각 상관계수를 보면 친밀감 하위요소들간의 상관관계가 친밀감하위요소들과 DAS하위요소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척도 모두 부부간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두 척도 하위요소들간의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친밀감 하위요소중 애정적 친밀감의 하위요소는 DAS의 하위요소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친밀감 척도의 애정적, 성적, 현신적, 인지적의 4요소 모두 친밀감 전체척도와의 상관이 .95., .686, .704, .723으로 DAS와의 상관계수 .723, .477, .455, .471보다 훨씬 상회하는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일례로 현신적 친밀감과 친밀감 전체 척도와의 상관을 보면 .704로 이 요소와 DAS와의 상관계수 .455를 훨씬 상회하여 현신적 친밀감이 친밀감 척도의 하위요소로 타당하며 DAS와는 다른 개념의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4개의 하위요소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친밀감 개념과 적용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친밀감 척도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성적 요소와 현신적 요소의 전체 척도와의 상관이 각기 .686과 .704로 DAS와 친밀감 전체 점수와의 상관 .708보다 약간 낮게 보이나 .686이나 .704라는 점수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DAS와의 상관계수 .477,

.455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까닭에 친밀감 개념의 하위요소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가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하여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정의 및 요소를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고 두번째가 이를 바탕으로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개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부부간 친밀감 개념이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상호적으로 느끼는 가깝고도 공유되는 밀접함으로 이에는 애정적, 성적, 현신적, 인지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밝혀냄으로써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상담현장에 부부간 친밀감 개념의 명확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바 부부가 서로 친밀해 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나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 부부간에도 친밀감의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의사소통할 수 없어 부부가 친밀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Moss & Schwebel, 1993). 실제로 부부간 친밀감은 부부간 불화와는 부적인 관

계에 놓여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Solomon et al., 1992; Strong, 1975), 성별에 따른 친밀감 개념규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바(Reedy et al., 1981) 부부간 친밀감 증진을 위해 친밀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부부가 추구하는 친밀감을 동일하게 접근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내담자들에게 친밀감을 증진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344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구성작업을 통해 애정적 요소를 측정하는 10개 문항, 성적 요소를 측정하는 3개 문항, 헌신적 요소를 측정하는 3개 문항,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9 문항의 부부간 친밀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가 .903으로 신뢰할 만한 수치이다. 타당도는 관련자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DAS와의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척도의 개발이 앞으로 부부상담과 가족연구에 있어 부부간 친밀감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부부치료 및 성치료의 분야에서는 EMIT(Enhancing Marital Intimacy Therapy)라는 독자적인 분야로 부부간 친밀감이 부부치료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활발히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부부간 친밀감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의 결과로써 부부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요소구분 및 척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산층에 제한되어 이루어진 점과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해 최초의 문항이 선정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미비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권희안(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pp 30-70. 하우.
- 2) 고선주(1993).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권 2호, 55-67.
- 3) 고선주, 조은숙, 이경희, 최연실 공역(1994). 사랑의 심리학. 로버트 스텐버그 외 지음. 하우
- 4) 김은주(1994). 노부모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종옥(1994). "결혼초기 위기상황에 대한 부부치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18-21.
- 6) 남영주(1994). 가족생활주기론 본 기혼 여성의 형제자매관계 특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박찬미, 서병숙(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권 2호, 145-162.
- 8) 신호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9) 이기숙(1984).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논문집, 17, 601-617.
- 10)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1) 이명홍(1993).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가족치료 현황과 쟁점". 한국가족치료학회, 창간호, 1-12.
- 12)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0권 1호, 27-71.
- 13) 진길양, 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한국노년학, Vol. 13, No. 1, 17-38.
- 14) 진혜정(1992). 노년기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15) 조병은, 신화용(1992). "사회교환적 관점에서 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Vol. 12, No. 2, 83-98.
- 16) 최신태(1986). "도시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집, 171-198.
- 17) Adams, B. N.(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 Interpretation (3rd)*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8) Argyle, M., & Dean, J.(1965). "Eye contact, distance and affiliation". *Sociometry*, 28, 289-304.
  - 19) Chelune, G. J., Waring, E. M., & Vosk, B. N., Sultan, F. E., Ogden, J. K.(1984). "Self-Disclosure and its relationship to marital intimacy". *J. of Clinical Psychology*, Vol. 40, No. 1, 216 - 219.
  - 20) Doherty, W., Colangelo, N.(1984). "The Family FIRO Model: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9-29.
  - 21) Erikson, E.(1950).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 22) Feldman, L. B.(1979).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Intimacy: An Integrative Psychodynamic-Behavioral Systemic Model". *Family Process*, 18, 69-78.
  - 23) Fredman, N. & Sherman, R.(1987). *Handbook of Measurements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Bruner/Mazel, Publishers, New York.
  - 24) Giddens, A.(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25) Glenn, N. D.(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 26) Greenberg, L. & Johnson, S.(1986). "Affect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1-10.
  - 27) Hatfield, E.(1984). "The Danger of Intimacy" In V.J.Derlega(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Pp 207-221. Academic Press.
  - 28) Hetherington, S. E. & Soeken, K. L.(1990). "Measuring Changes in Intimacy and Sexuality: A Self-Administered Scale". *J. of Sex Education & Therapy*, Vol. 16, No. 3, 155-163.
  - 29) Hinde, R. A.(197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Medicine*, 8, 373-396.
  - 30) Magolin, G. & Weinstein, C.(1983). "The role of affect in behavioral therapy". In L. R. Wolberg & M. C. Aronson (Eds.) *Group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 31) Morton, T. L. & Douglas, M. A.(1981). "Growth of Relationships" In S. Duck & R. 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2: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pp.3-26, New York : Academic Press.
  - 32)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33) Patterson, M. L.(1976). "An Arousal Model of Interpersonal Intimacy". *Psychological Review*, Vol. 83, No. 3, 235-245.
  - 34) Patton, D. & Waring, E. M.(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 of Sex and Marital Therapy*, Vol. 10, No. 3., 201-206.
  - 35) Reedy, M. N., Birren, J. E., & Schaie, K. W. (1981). "Age and sex differences in satisfying love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4, 52-66.
  - 36) Reis H. T. & Shaver, P.(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W.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367-389, John Wiley & Sons Ltd.
  - 37) Schaefer, M. & Olson, D.(1981). "Assesment of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 38) Solomon, Z., Waysman, M., Belkin, R., Levy, G., Mikulincer, M., Enoch, D.(1992). "Marital Relations and Combat stress Reaction: The Wives' Perspectiv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16-326.
  - 39) Spooner, S.(1982). "Intimacy in Adults: A Developmental Model for Counselors and Helpers".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0, 81-99.

- 40) Stanley, S. M., Markman, H. J.(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95-608.
- 41) Stevens, F. E. & Labate, L.(198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Theory-Derived Measure of Intimacy". *The American J. of Family Therapy*, Vol. 17, No. 4, 359-368.
- 42) Stone, W. F.(1973). "Patterns of conformity in couples varying in intimac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413-418.
- 43) Sullivan, H.(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orton.
- 44) Traupmann, J., Eckels, E., & Hatfield, E.(1982). "Intimacy in older Woman's Lives". *The Gerontologist*, Vol. 22, No. 6, 493-498.
- 45) Waring, E.(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85-192.
- 46) Waring, E., McElrath, D., Lefcoe, D., & Weisz, G.(1981). "Dimensions of Intimacy in Marriage". *Psychiatry*, Vol.44, 169-175.
- 47) Waring, E., McElrath, D., Mitchell, P. & Derry, M.(1981). "Intimacy and emotional illness in the general population" .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6, 167-172.
- 48) Waring, E.M., Tillman, M.P., Prelick, L., Russell, L., Weisz, G.(1980). Concepts of Intimacy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J. of Nervous & Mental Disease*. Vol. 168, No. 8, 471-474.
- 49) White, K., Speisman, J., Jackson, D., Bartis, S., Costos, D.(1986). "Intimacy Maturity and its Correlates in You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52-162.
- 50) Wynne, L. C.(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Vol. 23, No. 3, 297-318.
- 51) Wynne, L. & Wynne,A.(1986). "The Quest for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383-394.

[부 록]  
부부간 친밀감 척도 (남편용)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인은 나의 복잡한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부인과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부인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부인은 내 감정이 상했는지 혹은 좋은지 잘 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부인은 나에게 최상으로 적합한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성적인 표현은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혼자만을 위한 일보다는 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택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우리부부는 서로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부인과 함께 있어도 때때로 허전함을 느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부인은 우리의 성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우리 부부는 대체로 '나의 것'보다는 '우리의 것'을 고수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부인과 함께하고 싶을 때 부인에게 이를 표시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기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부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우리 부부의 이야기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부인을 보면 불수록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누군가에게 심정을 토로하고 싶을 때 우선 부인에게 이야기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둘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느 다른 부부 못지 않게 행복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인용 질문지는 '부인' 대신 '남편'이라는 용어를 사용.

\*\* 점수 부여 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 9, 10번 문항은 응답점수를 역으로 하여 합산함.